

쉬맹이라 훈 사름이
천하거부로 잘 살아지난,
하님년은 맷개 들고
아방을 팽풍 치연 모사두서
밤이 중석??지 잘 먹이멍
살았수다.

쉬맹이 아방이
굵 예쉰이 나난
식상 식술을 설러불고
아칙이도 죽, 낮이도 죽,
조녁이도 죽,

흐로

죽 시발쓱을
먹이기로 흐니.
쉬맹이 아방은
때 들려온 하님년신디.
“이거 어떻 흐난
응 훈 때 죽 훈사발쓱만
주느냐?

내 배고파서 못살겠다.”
하님년은 말을 흐되.
“한집님 말이,
똑 이초록만 흐랜 흡디다.”
이젠 쉬맹이 아방은
아들을 불러다놓고
“어떻 훈 일곤?”

흐난.
“아바지, 사름 훈대가 서른인디.
아바진 금년이 예쉰.
두대를 살아시니 너미 살았수다.
아바지가 두대를 살아도
더 잘 먹을커건
죽엉 저싱 가도
하다 이싱에
귀신으로 먹으레 오질 말키엥

호민.
죽엉 삼년상에 식상 식술
놓는 뜻,
잘 대접 훌쿠다.”
“아, 경 훌키여.”
“경호건.
아방은 죽엉 가도
인간이 초호를 보름
식개 맹질 기일제소 때에
하다 오지 아니호키엥
징서를 씹서.”
아방은 경 호기로
징서를 써난.
쉬맹인.
아방이 죽엉 강 먹는 뜻,
쇠잡아 놓고
전이 일체로
밤이 증석??지 잘 먹이는데.
예신 호나 나는 해엔.
막 먹는 뒷날은
그만 황천질을 터났구나.
쉬맹인, 죽은 아방을
거적에 쌈 간 틱와불고,
아방상에 물 훈적 거려 놓는 양
엇이
편씩호연 지내였수다.
섯들 구름은 당호난
저싱선 감옥문을 올아놓고
저싱 제자들을 몬 불련,
“이싱에 맹질 먹으레 강 오랜.”
보내난.
다른 제자들은 매딱 누려갔는디.
어떤 제가 옥방속에서
옥통조를 부는 소리가 난다.
천지왕이 토인 남상?라
말을 호되,
“저디 강 봐라,
어떤 주가 옥통조를 부느냐?

물어봐라.”

“간 보난

쉬맹이 아방이노랜 흡디다.”

“흐건, 이레, 강 불러오라.”

쉬맹이 아방은 천지왕 앞으로
오난,

“는 어떤 즈냐?

다른 제는 옥문을 읊으

맹일먹으레 보내난

지꺼지연 나가는디,

는 무사 아니감시니?”

“나는 인간이 가도

어느 누게 물 훈적 흐영

줄 제가 엇언 아니갔수다.”

“경 흐여도 이 때엔 다 간다.

강 보아라.”

“아들은 이싱서 천하거부로

잘 살아도

저싱 가민 아니얻어먹기로

댁임을 씨여두언,

이싱서 저싱 껏??지,

문 먹언 오랐수다.

“경흐여도 셋둘구름엔

경 아니훈다. 강 보라.”

이젠 쉬맹이 아방은

인간일 나오란

아들집일 갔구나.

쉬맹이 아방이 인간이

쉬맹이 집일 오라서도

아무것도 줄 회겔 아니흐연,

편씩덜 앗이난.

물 훈적을 못얻어먹고

저싱엘 갔수다.

쉬맹이 아방이

이싱에 나왔단

저싱엘 가시난.

천지왕이 말을 흐되,

“느 간 맹질 먹언

완디야?”

“게메, 나 체얌부떠

아니가키엔 아니홉디가.

그냥 오라부렀수다.”

그젠 천지왕은

군줄들을 내세완,

“인간에 쉬맹일 강 심엉오라.”

훗난,

군줄들은 쉬맹이 심으레

완 보난,

죽구는 개도 아옵이고,

무는 개도 아옵이고,

차는 물도 아옵이고,

찌르는 쇠도 아옵이고,

굿딱 들어갈 수가 엇언,

저싱으로 되돌아간,

천지왕?라

“쉬맹이네 집일

굿딱 들어갈 수가

엇입디덴”

골으난,

천지왕은 그만 화를 내고

군수를 거느리고

쉬맹일 심으레

인간이 누려완 보난,

아닐카,

개영, 쇠영, 물이영

딱 직^호여 사부난

들어갈 수가 엇었수다.

쉬맹이네 집에 들어갈 수가

엇이난,

올래 몽쿠실낭 상가지에

올라 앗안

일만 군수?라 말을 훙되,

“열두 승험을 들이라.

그놈의 집 솔앞이 강

장삼계염이를 일루라.”

솔앞이 계염이가 일어나난,

늦인득이 정하님은,
“솔앞이 게염이가 일었수다.”
쉬맹이가 말을 허되,
“그게 승힘이 아니다.”
“솔뒤에 용달버섯이 났수다.”
“장재집이 반찬 떨어져가난
초기 대신 났다.
그게 승힘이 아니다.
반찬 대신 볶으라.”
“말치가 저 올래에
엉기덩기 걸음을 햄쑤다.”
“장재집이 매날 불솜아부난
더위 깨래 나갔다.
그게 승힘이 아니다.”
이젠
“밭갈쇠가 지붕 한간으로 들언
지붕 상모를 넘엄수다.”
“장재집이 쇠 잘 맥이난
술쳐부난 콉재완 경흐염다.
것도 승힘이 아니다.”
천지왕은 일만군수 시견
쉬맹이신디 승험을 들여봐도
쉬맹이가 ”딱을 안흐난
이젠 씩철망을 곳다단
쉬맹이 대갱이레 팍 씌우난.
그젠 쉬맹인
“아이구! 대맹이여.
애이구! 대맹이여.
큰 아들아
도치 ？정 오랑
나 대맹이 직어도라.
대맹이 아판 못살키여.”
큰아들은 말을 허되,
“아방 대강일
도치로 어떻 직음네까?
난 못흐쿠다.”
셋아들 ？라 골아도
“아방 대강일 못직으쿠다.”

족은아들?라 골아도
“못직으쿠다.”
호연.
흘 수 엇이, 이젠
수^ム름 종년을 불련
“나 대갱일 도치로 직어도라.
아판 못살기여.”
호난,
종년은 츄마 한집 대갱일
직을 수라 엇언.
도칠 들련 대갱일 직는
것^ト록 호단
대문지방을 더락기 찍으난.
천지왕은
쉬맹이 대갱이 씌운
철망 부서지카푸댄
철망을 확 겉우우난
아픈 대강인 옥곳 나사진다.
천지왕은 누시 쉬맹일
잡지 못호연
바구왕집으로 가는구나.
바구왕집인 곱딱훈 뜰
서수암이가 시였는디.
이 뜰은
바구왕광 총맹부인 주이에
낳은 뜰이우다.
천지왕은 그날 츄녀은
바구왕집이 즘을 자게
되는구나.
밤인 천지왕이 총맹부인?라.
“어디 당흔쓴 새각씨라 시민
드라당 인방이나 새영
가주기마는!
발실려완 자질 못호쿠다.”
호난
총맹부인은 그젠
뜰방일 들락날락 호멍.
미신 말 ?를 듯 ?를 듯

호당

그냥 나곡 그냥 나곡.

호난.

서수암인.

“어머님, 미신 ？를 말을
아니?란 기영 호염수가?”

호난.

“수실이 기영 아니 흐였저,

천지왕이 누려오란

밤을 자는디

당흔쓴 새각시나 시민

구호여 도랜 흐여도,

늘 ?라 누시

입에 말이 아니나오란

그냥 감?라.”

“어머님아,

나 나이, 이제 열^으슷

아니우꽈,

그런 천지왕 곧은 사월

흐여질 것 같으민

미신 분압을 흡네까.”

호난.

그날 밤인

서수암이가 등불을 들런

천지왕방으로 들어간다.

천지왕은 인기척 소소리가

나난.

“거, 누게냐?”

“서수암이 올십네다.”

“괴씸호다.

느방으로 나고가라.”

서수암인 애삭호연

지방으로 돌아온다.

뒷날 밤인

이 날 저 날 야주시에

천지왕이 등불을 들르고

서수암이방으로 완.

서수암이 ?라.

“지나간 밤.
내 골은 말에
느가 애삭호였느냐?
남주가 예주방을 쫓아가지
예주가 남주방을
모녀 가는 법이 아니다.
늘?라 문첩호노라.”
그날 밤은
천지왕광 서수암인
천상배필 시겼구나.
밤이는 누었단
천지왕이 백장데레 돌아누멍
한숨을 “후~” 흐게 쉬난,
서수암이 흐는 말이,
“인간이 느려오랑
누취훈 인간광 밤을 자지니
그럼네까?”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아들 성젠
느 몸에 두엉 감건마는
누게가 이 아이들은
천지왕 아들이엥
크리 내겨주지 안흘 거니
그러는다.
아들랑근 성젤 낳건
큰아들은 대밸왕,
족은 아들은 소밸왕.
뜰 성제랑 나아지건
큰뜰랑 대밸대기
족은뜰랑 소밸대기로
흐여라.”
본매본장은
용얼래기 훈착 흐고
곡씨 두 방울광 다림 훈착을
내여주멍.
“곡씨랑, 이월 나건
쳇 뜻일에 싱경
칠월 나건

쳇듯일에 수둔 주엉
줄볕아가건
그 줄 바랑
옥황데레 아방국에 올라오라.”
서수암인 그날추낙 천지왕광
천상배필 무은 게,
아옵둘 열둘 춘짐 식건
아들 성젤 낳안,
큰아들은 대밸왕
족은아들은 소밸왕
일름을 지왔구나.
이 아들들을 질우는 게
혼이 시술 나난
기는 것도 글발이요
우는 것도 글소리라.
흔 일곱술 나난
글 훈제를 그리치민
열제쏙 통달호곡,
ং 일천서당에 보내난
하도 글이 좋앙그네,
수뭇 호여가난.
다른 선비들은 시기하고
“밤공다리 생긴거여
낮간나이 낳은 거여.”
호명, 졸려가난.
아들들은 집이 오란,
어멍국을 답달호멍.
“우리 아방 누게우꽈?
쫓아줍서.”
“천지왕이 느아방이여.”
“게난, 우리 아방이
본미본장도 아니두언 갑디가?”
“무사 아니두엉 가느니,
쿄씨 두방울 호고,
용얼래기 훈착 호고,
다림 훈착 두언 갔저.”
“게건, 이레 내여놉서 보저.”
서수암인 아들들신디

본미본장을 내여주고,
이월 난 셋돗일에
성제라 콕씨 훈방울쏙 싱건.
칠월 나난
셋돗일에 수둔주고
그 콕에 줄이 벌으난.
콕줄로 노기상공 옥황데레
올라가난.
천지왕네 물팡돌에
성제라 놀암시난.
천지왕의 지동토인은 보안
“어떤 인간이
우리 천지왕 물팡돌에 왕
노느냐?”
호난.
대밸왕광 소밸왕, 성젠.
“무사 우리도 천지왕만인 훈
놈이다.
무사, 우리가 천지왕 노는 디
못 놀 사름이냐?”
그 말 들언.
토인은 이젠 천지왕신디
간.
“어떤 누취훈 인간이
천지왕님 물팡돌에 놀암수다.”
“강 물어봐라. 어떤 놈이냐?”
“물어보난, 우리도 천지왕만인
훈 사름이노랜 흡디다.”
“이례, 강 가이들 돌아오라.”
토인이 나간 대밸왕 성젤
들안 오난.
천지왕은 말을 호되.
“느가 외진외펜 어디냐?
성진성펜 어디냐?
“우리 외할으방은 바구왕이우다.
우리 외할망은 총맹부인이우다.
우리 어멍은 서수암이우다.
아방국은 천지왕이 올씹네다.”

“허허, 느 게니 본미본장이나

그쳤느냐?”

용얼래기에 다림 훈착 내여놓난

붓싹^흐게 맞아진다.

“내 주식이 분맹^흐다.”

“우리가 아방 주식이민

아방 동^모립에 앗아봐사

주식이 됩주,

경아니훈디 주식이 됩네까?”

“게건, 이레 왕 앗이라.”

큰아들 대밸왕은

동^모립에 앗안 똥오줌을 싸멍

흉애를 혔다.

이젠, 대밸왕이 말을 혔되.

“큰어멍 낳은 적시 되젱 혔민

큰어멍 가달로 나오라나사

됩네다.”

천지왕이 말을 혔되.

“기여, 느 혔지그려운냥 혔라.”

이젠, 성제가 아방동^모립에서

온 조새 문 혔단

큰어멍 굴중이 가달로

들어갔단 나온다.

대밸왕은 큰어멍 굴중이

원착 가달로 들어간

느 단착 가달로 나오곡,

소밸왕은 큰어멍 굴중이

느 단착 가달로 들어간

원착 가달로 나온다.

천지왕은, 큰아들 대밸왕^그라

“는 대밸왕이메

이싱왕을 강 쫓이^흐라.

족은 아들은, 는 소밸왕이메

저싱왕을 강 쫓이^흐라.”

흐난,

족은아들은 욕심이 씨연,

아방 골은양 아니^흐연,

대뱅왕^그라 말을 혔되,

“옵서, 우리 예숙이나 쫓겨방,
예숙에 이기는 제랑
이싱을 츄지 헤게
예숙에 지는 제랑
저싱을 췄이 흡시다.”
경현, 소밸왕은 대밸왕신다.
“속이 음은 낭기
저실이영 으름이영
섶이 삼네까,
쏙구린 낭기
저실이영 으름이영
섶이 삼네까?”
“어디 지영 헤여진댄 말이냐?
쏙이 음아사
저실이영 으름이영
섶이 산다.”
“계난, 무사 댓작은
쏙이 구리여도
저실이영 으름이영
섶이 펴렁케 돋읍네까
성님 예숙 지였수다.”
“또, 짚은 굴형에가
풀이 걸게 납네까
높은 동산이가
풀이 걸게 납네까?”
“어디, 높은 동산이
풀이 걸게 난댄 말이냐
짚은 굴형에가
풀이 걸게 나지.”
“계난 무사 사름 머리엔
높아도 머리턱이 거멍케 나고
발등엔 꺼력 훈점도
안났수가?
성님 예숙 지였수다.
저싱으로 가사 훌쿠다.”
성은 예수에 아시안티 지난
눈말 멀쭉멀쭉 헤여가난,
아시가 말을 헤되.

“게멘, 이번이랑 뜨난 예속을
훈번 더 쫓겨방
지는 제랑 저싱을 가기로 흡주,
이번이랑, 우리 고장을 싱경
고장 좋은 펜이
이싱을 촌지호기로 흡주.”
소밸왕은 성님인 대밸왕을
이경, 이싱을 촌지흘
궁량을 틀엄신디.
은동이에 고장을 싱건 보난
대밸왕 앞잇 고장은 만발하고
소밸왕, 이녁 앞잇 고장은
유울 고장이 되여가는구나.
그 영호난
밤인 누언 자는디.
소밸왕은 일어난 술째기
성 앞잇 고장을 지앞데레
등기여다놓완
몰른 척 호연 누언 잣수다.
붉는날은 일어나난
성은 불써 눈치 알안.
말을 호되,
“괴씸호다.
나 앞잇 고장이 걸음걸언
느 앞데레 간나?
느가 욕심이 너미 씨다.
난 저싱 촌이호레 간다.”
oho 호연 대밸왕광 소밸왕
성제라 갈라산.
대밸왕은 저싱 촌이.
소밸왕은 이싱 촌일 호였수다.
경호연 저싱광 이싱을
질루지쏙 촌지호연
다시리는디.
훈 하늘엔 해도 들, 들도 들,
욕심 씬 놈이 하고,
도독 적간이 하고,
인간이 불목이 하고,

상팻짓이 하영 싶고,
낭기, 돌 제푸실새라
말을 종종 굽고,
귀신 불령 생인 대답.
생인 불령 귀신 대답^흐곡.
수천이 속신^흐고,
일가 방문^흐여 온다.
경^흐여가난.
소백왕은 이싱 촛일 흐였건만,
이싱 다시리기가 제완.
이싱 법을 다시리질 못^흐연,
대백왕 성님신디
저싱데레 빌레 촛안 가는구나.
소백왕이 말을 흐되,
“성님이 이제랑
이싱 촛일 흡서.”
대백왕이 말을 흐되,
“그건 못^흐는 법이다.
할으방 갈 딘
손지가 대력 가도, 손지 갈 딘
할으방은 대력 못간다.
느가 촛이훈대로 어서 가거라.
내가 큰 법은 강 다시려 주마.
그 대신 족은 법은
내가 못다시린다.”
그영^흐연,
대백왕은 활선싱 거저님
불러단.
백근 활에 천근 쌀에
흑개구리 가래 박은 곱은 쌀을
오니즘쑥 물려단에
앞이 오는 해는 쏘와단에
동의 와당 광덕왕에 지부찌고
앞이 오는 들은 생겨두고
뒤엣 들은 쏘와다가
서의 와당 들 퉁국이 지울리난,
흔 하늘에
들도 흐나 해도 흐나

되는구나.

낭기, 돌, 제푸실세 말 고는 건,

후춧골리 닷말 닷되 칠새오리

말 바소완

마부름 주제에

동서레레 삭삭 불려부난,

낭기, 돌, 제푸실새, 감악새가

세가 칭칭 자련

말 못고게 되였구나.

귀신광 생인이

서로 말 고는 건

화정여광 남정종을 불러다가

백근 저울에 저우려반.

백근 찬 건

인간데레 지부찌고

백근 못찬 건

공주 둘 박안

옥황데레 지울리난

귀신을 공주가 둘이난

저싱광 생인을 부래고

생인은 공주가 혼나 매기난

귀신을 못부랜다.

경 혼연

대밸왕광 소밸왕은

아방 맹을 어견

천지왕 골은냥

흐지 아니 혼여부난,

인간 세상이

하근 도독들이 하고

불목조가 하고

나쁜 일이 하영 납네다.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여무 73세 이무생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228-236.